

국제표준화 전략 [하]

- 일본표준에만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 -

국제표준채택 자체에만 집착하지 말고 비즈니스모델, 즉 이익창출과 결부시켜 판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경쟁사의 특허 비즈니스 전략을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

□ 국제표준의 채택이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음

-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일본의 관심은 일본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채택되었는가 하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함
- 표준화란, 과당 경쟁 회피를 통해 시장 확대와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,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중요한 툴(tool)로서, 국제표준기관에서의 활동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음
 - * 국제표준화 활동도 중요하지만, 표준화 자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
- 현재는 국제표준화를 도모하려는 국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각자가 제안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동시 인정하는 「복수방식」이 정착됨
 - * 그 결과, 국제표준화 이후에도 시장에서 3~5개의 방식이 병존하며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는 것이 보통임
- 최근에는 빠른 기술진보로 인해 시장이 하나의 기술을 선택하기 전에 차세대 기술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서, 이러한 환경에서 “일본표준을 세계에 보급” 시키려는 전략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
 - * 중국시장에는 중국표준, 유럽시장에서는 유럽표준을 사용하여 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

□ 일본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방향

- 일본의 표준화활동 제안 건수를 보면, 국가규모에 맞게 이미 충분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

〈표준화 활동 제안 건수의 각국 비율〉

(단위: 건)

구분	일본	독일	미국	한국	중국	위원회	기타
국제전기 표준회의(IEC)	14	10	8	9	8	30	21
국제표준화 기구(ISO)	9	10	8	-	5	23	37

- 일본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, 이는 세계시장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
 - * 표준화된 기술은 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, 곧바로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착각해선 안 됨
- 일본기술을 유일한 세계표준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몇 개의 국제표준 중의 하나로 지정받기 위한 시도가 바람직

□ 표준화활동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

- 표준화는 타이밍이 중요한데, 빠른 표준화가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으며, 자신의 강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
 - 표준화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표준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
 - * 어디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표준화는 의미가 없음

- 표준화 활동은 타사 정보를 여러 루트로 입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
- 새로운 표준에 대해 경쟁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언제 전개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여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

□ 시사점

- 표준화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
- 기술의 표준화 채택이 바로 그 기업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, 오히려 이익 창출을 위한 경쟁은 표준화할 수 없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,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를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비즈니스화 할지를 염두에 두고, 그 서비스를 가장 유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신방식이나 포맷을 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함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, “問われる国際標準化戦略(下)” (2012.07.27)